

**청년주일
설교**

청년들이여 정체성을 찾으라

<창세기 27:1-23>

김 병 철 목 사 (동경성산그리스도교회)



안테르센의 동화집에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가 나온다.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보통의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다독여 주지만, 나중엔 어미 오리마저 새끼 오리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지요. 이에 상처를 받은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나고,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닭의 괴롭힘에 못이겨 새끼 오리는 결국 또 도망쳐 나온다.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어느날 새끼 오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수 있음을 알게 된다. 못생긴 오리인 줄만 알았던 새끼 오리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이었다. 이후,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 무리 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 다니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동화다. 원래부터 백조였던 그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남은 생애를 백조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이다.

본문의 내용은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한 쟁탈전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염두할 것이 있다. 에서와 야곱의 정체성 문제이다. 에서의 경우는 이삭이 “너는 누구냐?”고 묻자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지요.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이삭이 “너는 누구냐?”고 묻는 말에 야곱은 에서의 흉내를 낸다. 분명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축복, 성공, 물질, 권세, 명예 앞에서 순간 야곱이 아닌 맏아들 에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 이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 고백한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한다.

1. 정체성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냐 대답하겠는가?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들은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 야곱이 스스로 세상 앞에서 마치, 에서처럼 살아가지 않고 당당하게 야곱으로, 우리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오리가 아닌 백조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인가?’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창1:27-28절)

2.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인가? 혹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하면서 답해 보기를 바란다. 지구상에 모든 물건과 생물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창조되었을까? 성경은 이르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43 : 21)고 했다. 로마서11 : 36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 찬송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높인다’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3.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그 일을 하려는가? 과연 그것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인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이 목표를 인생의 목표로 세웠는가? 삶의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삶의 목표를 세우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목적을 설정하며,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목표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 버리고는 삶의 목표(꿈, 비전)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경우에 내가 세웠던 그 목표를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삶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내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 한 마디로 삶의 목표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청년 여러분! 진정 삶의 목표를 세웠는가? 여러분들은 왜 공부, 대학, 직장,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표를 잘못 세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목표를 세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삶의 그 어떤 목표라도 귀하게 존중을 받아야 한다. 삶의 목표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YMCA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10名様～200名様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ゴ・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관서지방회

아슈람기도수양회개최

「진리로 자유케 되자」라는 주제 아래

지난 5월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도시샤 비와코 리트릿 센터에서 관서지방회 전도부가 주최하는 제47회 아슈람 기도수양회가 개최되어 96명이 참가하였다.

이번에는 <진리로 자유케 되자>라는 주제 아래 대한 예수교장로회 부산동노회장 장정일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세 번의 강연을 들었다.

“믿음은 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신다. 그러니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 주변과 교회의 기도 뿐 아니라 보다 더 큰 문제를 놓고 드러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면 꼭 비판을 받게 마련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도 온갖 비판을 다 받았다. 맡은 임무에 충성하라. 남을 비판한다면 그 직분을 스스로 맡아 보라”고 전하였고, 참석자들은 크게 격려와 깨달음을 받았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으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또 아슈람의 특징인 야외 목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은혜가 넘쳐나는 집회였고, 1박2일은 짧으니 다음은 2박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요망이 나올 정도였다.

(보고 : 허백기)



관동지방회

장경태목사 위임식 거행

船橋教会 제6대 목사로서 부임



2018년 5월27일 주일 오후, 후나바시교회에서는 장경태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근식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김근식 명예목사가 <선한목자 예수> (요한10 : 10-12)라는 제목의 설교 후, 관동지방회 부회장 김병철목사의 사식으로 위임 서약, 기도, 선포의 순서로 거행되었다.

후나바시교회의 제6대 담임목사로 위임 받은 장경태목사는 1963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9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한예수교장로회로부터 일본선교사로 파견 받아, 2007년부터 제일대한기독교교회에 가입하여 섬겨 왔다. 가족은 부인과 3녀가 있다.

관서지방회

이승후목사 위임식 거행

京都東山교회에 작년에 부임



지난 2018년 6월17일(주일) 오후, 관서지방회 교토히가시야마(京都東山)교회의 이승후 목사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허백기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관서지방회 부회장 임명기목사가 <우문현답> (마 7 : 24-27)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관서지방회장 박성균목사의 사식으로 엄숙하게 시작된 목사위임식은, 서약과 기도 및 선포로 이어졌으며, 총회장 김종현목사가 권면, 축사에는 일본기독교단 라쿠요교회의 모리시타 코우목사가 하였다.

위임 받은 이승후목사는 197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15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로부터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가족은 부인과 2남 1녀가 있다.

중부지방회

채은숙목사 위임식 거행

大垣教会에 넘칠 정도로 참가자 모여



2018년 6월17일 주일 오후, 오가키교회에서는 채은숙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중부지방회 각교회에서, 그리고 한글학교의 동료 및 이웃 주민들까지 오가키교회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참석한 가운데, 임시당회장 고성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어 정수환목사가 <기초는 예수그리스도> (고전3 : 9~11)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목사 위임식은 중부지방회장 최화식목사의 사식으로 소개, 서약, 선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금번 중부지방회로부터 오가키교회의 목회를 위임 받은 채은숙목사는 1963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및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대신) 총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大阪教会

정차성 명예장로 소천

약 40년동안 교회 부흥에 큰 역할



지난 2018년 5월19일, 오사카교회 정차성 명예장로가 소천하여 오사카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享年 92歳.

故 정차성장로는 1926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5살 때에 일본으로 건너와 김덕성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1979년에 장로 장립을 받았으며 1997년 은퇴하기까지 긴 세월을 오사카교회를 섬겨왔다.

오사카 제일 민박 OSAKA STAY

대표 정흥권 장로/안희자 권사(오사카교회)

大阪市生野区中川西3-9-6(大阪教会近く)

Tel 06-6777-7033/携帯090-8538-4433

Kakao ID : nttip0033

Email:osakastay@dune.ocn.ne.jp

http://www.osaka-stay.net

大阪市指令許可書11549号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제51회 일본기독교단과의 선교협력위원회 개최

지난 6월6일(월) 일본기독교단(이하 UCCJ)과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 KCCJ)의 선교협력위원회가 동경 와세다 UCCJ회의실에서 가졌다.

〈양교단의 선교 과제에 대하여—다양화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진 금번 위원회에는 UCCJ에서는 총회의장 이시바시 히데오 목사를 비롯하여 11명이, KCCJ에서는 총회장 김종현 목사와 9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주제에 따라서 UCCJ 신임총간사 아키야마 토오루 목사가 선교협력의 과거 역사를 짚으며 다양화되고 있는 UCCJ의 교회현상을 발제

하였고, KCCJ에서는 동경 오아시스교회의 광경환목사가 조선족 선교에 관한 보고 및 선교적 과제를 발제하였다.

1984년에 체결된 협약의 〈협약문〉 및 〈선교협력지침〉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장 및 언어의 표현등의 변경을 승인하고 2018년도 〈평화메시지〉의 초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각교단의 8월 기관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전국 교회 기도 달력

* 선교위원회는 금년 매주일에 전국의 각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기도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위원회)

7월에 전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 1 일 : 京都東山教会(李承厚牧師)、奈良教会(姜宇烈牧師)
- 8 일 : 大阪北部教会(趙永哲牧師)、今福教会(朴愛仙牧師)
- 15 일 : 大阪第一教会(宋南鉉牧師)、大阪平康教会(南鉉牧師)
- 22 일 : 布施教会(全聖三牧師)、巽教会(李炳墉牧師)
- 29 일 : 大阪教会(鄭然元牧師)、大阪築港教会(朴時永牧師)

공 고

관동지방회 치리부 판결에 대한 공소의 건에 대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 치리위원회는, 성서와 재일대한기독교회 협법, 규칙, 계규, 재판규정에 의하여 교회의 기록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여 신중히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이수부 장로 : 정직 5년
- 오대석 장로 : 정직 3년
- 유대근 장로 : 정직 5년
- 무라카미 하루키 장로 : 정직 5년
- 김경준 장로 : 정직 5년

2018년 4월 27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치리위원장 정 연 원

公告 2018年度 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

在日大韓基督教会の「2017年度 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を以下のように実施します。神学考試委員會細則 (<http://kccj.jp/archives/959>) 及び宣教師加入考試請願書 (<http://kccj.jp/archives/148>) をもご参照ください。

一. 日 時 : 2018年 9月17日 (月・祝)

- ・オリエンテーション : 9:00
- ・筆記試験 : 9:30~17:00
- ・面 接 : 17:00~19:00

※但し、宣教師加入考試に應ずる者は、人事部面接を受けてから考試に臨むことになります。

二. 場 所 : 大阪KCC (在日韓国基督教会館)

〒544-0032 大阪市生野区中川西2-6-10 Tel 06-6731-6801

三. 考試科目

- ・牧師・伝道師考試 : ①旧約聖書 ②新約聖書 ③旧約釈義 ④新約釈義 ⑤組織神学 ⑥教会史 ⑦憲法 (総会憲法・総会規則・裁判規程等) ⑧KCCJ神学 (在日同胞史、KCCJ史・KCCJ宣教理念)
- ・宣教師加入考試 : ①憲法 (総会憲法・総会規則・裁判規程等) ②面接

四. 提出書類 (各正本 2通)

- ・牧師・伝道師考試 : ①考試請願書 (総会様式) ②地方会長推薦書 (総会様式) ③履歷書 (総会様式) ④神学生研修会参加証明書 (伝道師応募者) ⑤最終学校卒業証明書・卒業予定証明書 ⑥最終学校成績証明書 (伝道師応

試者) ⑦世帯全員・転出者を含む住民票 (韓国 : 家族関係証明書) ⑧写真 2枚

- ・宣教師加入考試 : ①宣教師加入請願書 ②牧師按手証明書 ③宣教師派遣・推薦状 ④宣教師後援約定書 (宣教師費等) ⑤日本宣教志望動機書 ⑥履歷書 (総会様式) ⑦経歴証明書 ⑧総会加入理由書 ⑨最終学校卒業証明書 ⑩最終学校成績証明書 ⑪家族関係証明書 ⑫写真 2枚 (宣教師で既に提出済の方は不要です)

五. 期 限 : 2018年 7月20日 必着

六. 考試料 : 牧師考試 : 2万円

伝道師考試 : 1万円

宣教師加入考試 : 1万円

※願書提出時に、総会の口座に送金すること

*郵便振替口座 : 000130-9-159228 (在日大韓基督教会)

※考試料・交通費は、応募者の所属する各教会と各機関で補助して下さい。

七. 提出先 : 総会事務局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5

電話番号 : (03) 3202-5398 FAX : (03) 3202-4977

2018年 6月 8日

総会長 金 鐘 賢

神学考試委員長 金 武 士

神学考試委員會書記 金 承 熙

세계교회협의회 (WCC) 아루사 선교대회에 참가하고서

요코하마교회 엄 지 용



세계교회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세계선교대회(Conference of World Mission and Evangelism)가 탄자니아아루사에서 2018년 3월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1,024명의 참가자가, 243가입교회, 152협력단체, 148개의 지원단체가 모이는 국제회의였다. 매일대한 기독교회에서는 교토남부교회 허백기목사, 요코하마교회 청년 엄지용이 대표로, 그리고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총간사로 내정된 김성제목사가 참가하였다.

제14회를 맞이하는 이번 세계선교대회의 테마는 <성령 안에서 선교: 변혁적 제자도로의 부르심>이었다. 또한 '선교 전도', '에큐메니칼', '아프리카 문명', '젊은이의 참가'라는 4가지의 특색 있는 회의로 진행되었다. 개최지인 아프리카 대륙의 문명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키워드로 하여 주일을 포함하여 6일간 이어졌으며 마지막에는 공동 성명문 발표가 있었다. 성명문에는 제자 됨에 관한 공동 이해, 다양한 과제(전쟁, 탐욕, 마이너리티, 난민, 환경 파괴 등)에 대한 공동 인식과 과제 해결을 위한 단결을 촉구하는 문서가 기록되었다.

대회의 일상적 프로그램은 아침기도와 성경공부로 시작하고, 강연과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오후 4시부터 시장 순례라고 하여 회의의 장 밖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상품을 준비한 상점과 사회적과제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방문한다.

저녁에는 반성회와 기도회, 그리고 아프리카 문화 교류와 젊은이들에 의한 이벤트 행사가 있고, 오후 9시 반에 하루 일정이 끝났다. 주일에는 자신의 교파와 다른 현지 교회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어, 다양한 교단과 교파를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참가자는 언제나 운영단체의 성명문에 대하여 문장 삽입과 변경의견을 낼 수 있고, 이러한 대화와 상호이해를 세계적 규모로 진행하고, 하나의 성명문을 발표한 것이 이번 세계선교대회였다.

기조 연설에서 올라프트베이트 WCC 총간사는 "지금까지 전도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세계는 아직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비롯하여 전도자는 자신이 먼저 변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변화에 대하여, 세계 개혁신교회 공동체 나즐라 회장은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필요하다. 주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자.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웃에 계증거하자. 교회의 벽을 넘는 전도에 힘쓰자"고 하였다.

아프리카 문명과 주변화에 대하여, 아디와쿠아신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주변의 젊은이었다.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기독교 전도는 식민지적 방법이었다. 주변에 속한 사람은 그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며, 그들을 전도자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본 회의에도 주변에 속한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며 앞으로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믿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큰 박수를 받은 나프룻·데살랜 신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다. 앞으로 3년간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선교적 적극성을 보였다.

마지막 날은 성명서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이루어졌다. 성명서를 읽는 동안 성명서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과 의견이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하였다. 의견 중에는 신학적 용어 정정, 환경 파괴와 이민, 난민에 대한 사회적 과제를 추가하자는 것, 특정 화제가 너무 과장되었다는 등에 의견이 있었다. 대략 20명 정도가 발언하며, 최종적인 "아루사콜"이 채택되었다.

특히 제가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KCCJ 총회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마디로 선교와 전도를 다시 생각하는 회의였다. 개막식 때 세계 개혁신교회 공동체 나즐라 회장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새로운 꿈과 상상력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다. 선교와 전도를 그저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저의 마음을 뒤돌아본다.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각자 지역 사회에서 전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들은 워크샵에서 '지역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인지?', '전도에 어떤 장벽이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였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더욱 잘 알기 위하여, 교회 근처에 카페를 하고 또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았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시카와(石川) 지역의 인구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돌아온 후, 지금까지 배운 것을 생각하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노력하겠다. 또한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대회에서 교파를 넘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낼 때, 한편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교리와 교파간에 차이, 기독교에 대해 더욱 알아 가도록 하겠다. 세계 각국에서는 뜨겁게 목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곳 일본에서도 <새로운 꿈과 상상력>을 가슴에 품고 초심으로 돌아가 복음 증거하며 살기를 소망한다.

